

신간회 전주지회의 조직과 활동

장경호*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신간회 전주지회 활동 |
| 2. 1920년대 전주 지역 민족·사회
운동의 현황 | 5. 맺음말
참고문헌 |
| 3. 신간회 전주지회 참여 인물 | <Abstract>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신간회 전주지회의 설립과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전주 지역 민족·사회 운동을 체계화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신간회 전주지회는 전국 지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27년 5월 10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회가 설립되었다. 1920년대 전주지역에서의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있었고, 이 단체들 중에서 일부는 연합대회를 결의하여 신간회 지지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의 일부 인원들은 신간회 설립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간회 전주지회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개신교인인 배은희가 회장을 맡았고, 지역 유지인 최경렬, 임택용,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전라도 위원인 이용기 등이 신간회를 주도하였던 점이 확인된다. 그러다가 대한제국기 관리 출신이었던 지역 유지 백용희가 회장을 맡았고, 신간회 복대표위원회 당시 전북 대표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그는 신간회복대표대회 서기와 중앙집행위원을 맡았다. 1929년대 말에는 사회주의자 김관제가 위원장을 맡으며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다. 즉, 초기에 하준기, 이평권 등 사회주의자들 또한 참여하였지만,

* 강원대학교 강원전통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 khchang@kangwon.ac.kr

1929년 9월부터는 김관제, 김철, 김문옥, 장재섭 등이 참여하다가 11월 8일 개신교도인 신현창이 재정부장에서 사임함으로써 신간회 전주지회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운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 중 신간회 전주지회에 참여한 인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참여했던 전주천도교청년회 김영호가 유일하지만, 1928년 4월 13일 자격이 상실된다.

신간회 전주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북지역, 나아가 전라 지역의 구심점 지회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주지역 1면 1분회 설치를 상정하고, 고산(高山), 삼례(三禮), 초포(初浦) 이동(伊東) 등에 분회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간회 전주지회는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였는데, 군대 배치로 인한 국유지 가옥 철거 문제, 민중 경찰 보안 조합 관련 조사연구, 학교 폐지 반대 운동, 산업통계조사기관설치, 누에고치, 면화지정 판매 반대, 무보수 부여 반대, 농민 및 여성운동 촉진, 3층 해금운동 등을 논의하였다.

신간회 전주지회는 1929년 말 집행위원회 금지를 시작으로 1930년 초의 여러차례 정기대회 시도 또한 금지된 이후 정식으로 개최된 정황이 보이지 않지만, 삼례 지역의 소작쟁의를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주제어 : 신간회, 전주지회, 배은회, 최경렬, 김관제, 하준기, 이평권

1. 머리말

1927년 2월 15일 경성에서 신간회가 조직된 이래 각 지방에서 지회가 설립되었고,¹⁾ 전북 내 각 지역에서도 신간회 지회가 설립되었다(군산,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전주, 정읍, 화호(禾湖) 나주, 익산²⁾). 이 중 전주의 경우 1927년 4월 1일 전국의 각 지회 중 가장 먼저 설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³⁾ 1927년 5월 10일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었다(1927년 4월 24일에 설립

1) 신간회 지회에 대한 총체적 분석 및 비평은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229~380쪽 ;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82~150쪽 ; 윤희정, 『신간회 지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문제연구』 18, 역사문제연구소, 2007을 참조하였다. 신간회 각 지회 관련 연구성과는 윤희정, 『신간회 순천지회 연구』, 『호남학』 70, 2021, 185쪽 각주 2)를 참조하였다.

2) 전라북도 지회 현황과 부서 및 간부진에 대한 대략적 사항은 이균영, 앞의 책, 1993, 617~620쪽 참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회 설립 현황에 대해 밝힌 바 있지만, 나주·익산 지회(1927.6.29.)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전국 지회설립 현황은 윤희정, 『신간회 운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17쪽에서도 참조하였다.

3) 이균영, 앞의 책, 1993, 617~620쪽 ; 신용하, 앞의 책, 2007, 107쪽.

된 정읍이 첫 번째)4) 이는 전주 지역의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이 이미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전주지회는 전라도 신간회 도 연합회를 발의하는 구심점 지회로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각 면의 신간회 지회 설립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른 지회와 마찬가지로 신간회 전주 지회의 회원도 점점 증가하였다. 설립 초기 회원은 30~39명 이었지만,5) 1927년 말에는 60명, 1929년 말에는 180명에 이르렀다.

전주지역에서의 민족운동단체는 전주청년회 전북기자단을 비롯하여, 신간회 설립을 전후하여 전주청년동맹, 전주민우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다. 기독교계, 노동계, 언론계 등 단체에 참여한 일부 인물은 신간회 전주지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간회 전주지회는 신간회 지회 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지만, 설치 현황만 언급되었다.6) 이는 전주지역의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 연구가 미진한 것과도 관련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간회 전주지회의 논의 내용과 참여 인물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개신교 계열에서는 회장인 배은희를 포함하여 영생보육원을 설립한 고득순이 참여하였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다수 참여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나타나는 전주지역 신간회의 설립배경과 개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할 것이다. 먼저 날짜별 신간회 준비과정과 개최과정에 대해 모두 정리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참여한 임원들의 면모를 국가보훈처 공훈록과 직원록, 관원 명단, 기타 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인물들이 전주지역 신간회 지역에 참여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사 연구와 신간회 지회 연구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4) 이균영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읍에 이어 그 다음으로 전주에서 신간회 지회가 설립되었다(이균영, 앞의 책, 1993, 34쪽). 신간회 정읍지회와 관련해서는 박찬승, 『1920년대 정읍군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90, 2019, 102~105쪽 참조.

5) 이균영, 앞의 책, 1993, 259쪽.

6) 신용하, 앞의 책, 2007, 107~108쪽.

7) 오대륙에 의하면 전북민중운동자동맹이 해체 이후 이 구성원들이 전북지역 신간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갔다고 보고 있다(오대륙, 『1920년대 ‘전북민중운동자동맹’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1, 2007, 84쪽). 전주 지역에는 이평권과 김철이 전북민중운동자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초기에는 이평권이 후기에는 김철이 주도적으로 신간회 전주지회를 이끌었다.

2. 1920년대 전주 지역 민족·사회 운동의 현황

『조선일보』 1927년 10월 1일자 4-5면에는 전주 기념호가 특별 호로 실려있다. 이날 5면에는 전주청년동맹과 전주노동연맹(1927.7.25.)(팔호 안은 창립 연월일), 전주인공조합(1925.8.17.), 전주정미인접노조(1926.2.28.), 전주소년회(1924.3.5.), 전주배달인조합(1924.12.5.), 전주철공조합(1924.12.15.), 전주양화공합조합(1924.5.28.), 전주고용인친목회(1924.7.31.), 전주기독교청년회(1927.9.15.), 전주제과노조(1927.5.15.) 등을 설명하면서 전주 신간지회가 언급되었다.⁸⁾

신간회 창립을 전후해서 신간회를 지지한 단체는 전주청년위원회(1927.6.11.) 전주노동연맹(1927.8.3. 이용기 사회, 서기 김균(金均), 중앙집행위원 송영섭(宋寧燮)외 26명)⁹⁾ 전주형평사, 전주민우회 등 이었다.

전주지역 신간회 운동을 주도한 단체로는 청년단체를 들 수 있다. 이 지역 청년회는 본래 (구)전주청년회, 명성회(1923년 8월 창립), 일신청년회(1924년 7월 9일 창립)가 있었고, 상기한 단체들이 1924년 8월 16일 주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창립된 단체가 전주청년회였다.¹⁰⁾ 기록상 가장 처음 등장하는 전주지역 청년단체는 1919년에 창립된 청년구락부였고, 1920년 완산청년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¹¹⁾ 1921년 (구)전주청년회로 이름이 변경되었다.¹²⁾ 종교 단체로는 전주 천도교청년회(1920년 6월 20일)¹³⁾ 청년수양회, 기독교청년구락부(1922년 4월 15일)¹⁴⁾ 등이 있었다. 전주청년회는 군산, 남원, 김제, 용담 등 청년회와 연합하여 전북지역 5개 연합 청년대회를 이끌기도 하였다.¹⁵⁾ 또한 전주청년, 형평청년, 여자청년회 세 단체가 단합하여¹⁶⁾ 송정리 노동분규 문제에

8) 「十年以來惡戰苦闘 陣容整齊 面目一新」, 『조선일보』 1929년 10월 1일 5면 2단

9) 「全州勞動聯盟 創立大會開催」, 『동아일보』 1927년 8월 6일자 4면 1단. 전주배달인조합, 전주인쇄직공조합, 전주양화직공조합, 전주철공조합, 전주정미인접노동조합, 전주제과조합, 전주고용인조합, 삼례노동조합, 삼례정미인조합 등 9개 단체와 대의원 44인이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0) 「全州青年創立總會」, 『조선일보』 1924년 8월 20일 4면 2단.

11) 「完山青年會總會」, 『조선일보』 1920년 7월 8일 3면 8단.

12) 초기 전주지역 청년회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이현진, 「전주청년회의 성격변화와 간판 철거 사건」,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4권 2호,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2021. 155쪽을 참조.

13) 「全州天道敎青年會」, 『동아일보』 1920년 6월 28일자 4면 4단. 이후 천도교 청년회 전주지회에서 강연회를 주최하기도 했다(「天道青年大講演會」, 『동아일보』 1921년 6월 8일자 4면 6단).

14) 「青年俱樂部發會式」, 『동아일보』 1922년 4월 25일 4면 7단.

15) 「全北에도 青年大會」, 『조선일보』 1925년 3월 7일 2면 6단.

16) 「三會青年聯合會」, 『동아일보』 1926년 7월 12일 4면 10단.

대응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청년단체에 참여한 다수의 인물들이 신간회 전주지회에 참여한다. 다만, 초기 신간회 전주지회를 주도한 임원은 개신교 계열이지만, 전주기독교청년회나 전주천도교회 등 종교계열 청년회 임원들 중 김홍수, 김영호, 신현창 등이 신간회 조직에 참여하였다. 특히 전주청년동맹에서는 신간회 전주지회 창립 이후인 1927년 11월 20일 회의에서 이후 신간회 전주지회에 참여하는 최태혁, 김홍수, 송주상, 이평권 등이 주도하여 전 민족적 단일당 결성 촉진의 건을 논의하였다.¹⁷⁾

다음으로 전주지역 노동운동 단체다. 전주지역에서는 노동단체들이 연합하여 상애회를 규탄하였고,¹⁸⁾ 전주신문 배달부조합의 전주배달총회(1925.8.11.) (서무부 김문옥이 신간회 참여)¹⁹⁾ 등이 있었다. 마침 1927년 5월 1일 페이데이를 기해서 전주에서는 배달, 인쇄, 철공, 양화 4개 노동단체가 연합하여 휴업, 기념식, 시위행렬, 강연회 등을 개최할 것을 논의하였다. 김문옥(배달), 하준기(철공) 등이 이후 신간회에 참여하였다.

신간회 전주지회가 결성되기 6일 전인 1927년 5월 4일 전북노동동맹이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단일전선을 통해 신간회 결성 관련을 논의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전주인쇄직공조합 이평권, 철공노동조합 하준기 등이 차후 신간회에 참여하였다.²⁰⁾ 그리고 전주노동연맹대표 김문옥, 전북민중운동자동맹²¹⁾에 참여한 김철²²⁾, 전주청년동맹 대표 오창근 등이 1929년 10월 23일 전북 각 면 보안조합의 노동조합원 탄압에 대해 연합하여 대응하였다.²³⁾

마지막으로 전주민우회(전주교풍회의 후신)를 들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신간회지회 단체인 민우회는 신간회 해소 이후에도 전주지역의 시민단체로 그

17) 『全州青年同盟 全州支盟組織』 『동아일보』 1927년 11월 23일 4면 3단.

18) 『全州勞動團體』 『동아일보』 1926년 7월 13일 5면 3단.

19) 『全州配達總會』 『조선일보』 1925년 8월 16일 4면 6단.

20) 『派爭分子撲滅』 『동아일보』 1927년 5월 6일 5면 10단.

21) 오대륙, 앞의 논문, 2007, 70쪽.

22) 한국사회주의인명사전에 의하면, 김철은 전북민중운동자동맹 회무위원, 전북청년대회 준비회, 전북기자단 대회 집행위원, 전조선노동대회 준비위원회 익산 대표 고려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 시월당(十月黨)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 2월 익산노동 연맹 상무집행위원, 전북노동연맹 결성, 집행위원 선출 고려공산청년동맹과 고려공산청년회를 통합하여 ‘통일 고려공청’을 건립할 것을 결의, 익산청년동맹, 12월 고려공청 중앙집행위원 선임되었고 1927년 신간회 익산지회 11월 고려공청 책임비서 등을 맡았다(『한국사회주의인명사전』 「김철」)

23) 『勞動組合員의 雇傭防止를 懲憑』 『동아일보』 1929년 10월 24일 3면 5단. 한국사회주의인명사전에 의하면 김철은 신간회 익산지회에 있다가 1928년 1월 피체되었다고 하는데(각주 22 참조) 신문자료에 의하면 김철은 신간회 전주지회에서 활동하였다.

명맥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체로 생각된다. 1927년 5월 10일 신간회 설립 이후에도 민우회는 별도로 존속했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신간회에도 다수 참여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민우회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신 교풍회를 살펴봐야 한다. 교풍회는 전라북도 도지사의 제안으로 조직된 것으로 1916년 5월 22일 2회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설립된 단체로 보인다. 회장 이강원(李康元)을 비롯해 전주면장 김성규(金性珪) 등 다양한 유지들이 참여하였다.²⁴⁾ 처음에는 조선인만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일본인도 참여하는 단체로 확대되었지만,²⁵⁾ 차츰 그 활동이 없다가 1921년 7월 24일에 유지 50여 명이 토의하여 교풍회 부흥 운동을 벌였다.²⁶⁾ 교풍회는 환자수용소 설비, 치료 외에 기타 지역민들을 위한 일들을 벌이기도 했지만, 본래 취지는 회원간 이익을 위한 단체였다.²⁷⁾ 1927년 4월 24일 민우회로 이름을 개칭한 이후 임원 개선 4개 부(사회·교육·조사·서무)를 설치하고, 시민운동회와 순회강연회, 야학 등 개최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²⁸⁾ 민우회는 1927년 5월 8일 전주지역의 시민운동을 주도하였고, 조선, 중외, 동아일보 전주 지국이 후원하였다.²⁹⁾ 이후 민우회와 청년회가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1927년 6월 11일 전주청년회 이사회와 민우회 이사회를 같이 개최하였다는 기사에서 확인된다.³⁰⁾ 주목할 점은 교풍회 혁신에 활동했던 최경렬, 박원직(朴元直), 이원규(李元奎) 등은 신간회 창립에 관여하였다는 점과 1928년 10월 2일 제3회 정기대회에 참여하였던 인물들 중 신간회에 참여한 다수의 인물들이 참여했던 점이다(총무에 임택용, 상무에 김동선, 체육부장에 송주상, 이사 김동수)³¹⁾ 신간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단체로는 형평사 전북지사가 1923년 6월 24일 전주공회당에서 설립되었고,³²⁾ 전주형평청년회(1925년 6월 9일)³³⁾가 설립되었다.

24) 「矯風會의 표창」 『매일신보』 1916년 5월 3일 4면 5단.

25) 『매일신보』 1916년 8월 29일 2면 7단.

26) 「全州矯風會復興」 『매일신보』 1921년 7월 30일 4면 4단.

27) 「內容을 革新한 全州矯風會總會 金駿熙氏會長新任으로 諸問題를 圓滿解決」 『매일신보』 1926년 12월 10일 3면 3단.

28) 「全州矯風會 會名改稱及豫算通過」 『조선일보』 1927년 4월 29일 1면 9단. 「全州矯風會 民友會로 改稱」 『매일신보』 1927년 5월 2일 3면 3단.

29) 「全州市民運動 五月八日開催」 『동아일보』 1927년 5월 2일 5면 4단.

30) 「全州靑年理事會」 『조선일보』 1927년 6월 14일 1면 9단.

31) 「全州民友會 定期大會開催」 『동아일보』 1928년 10월 6일 5면 6단.

32) 「衡平全北支社祝賀會」 『조선일보』 1923년 6월 30일 4면 4단.

33) 「全州衡平靑年會」 『동아일보』 1925년 6월 9일 5면 4단.

신간회 전주지회는 전주지역 내의 여러 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간회 전주지회는 노동단체 청년단체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1927년 8월 3일 전주지역에서 전주노동연맹이 창립되었고, 이들은 신간회 지지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전주지역 내의 배달부 조합에서도 정기총회를 통해 신간회를 지지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단체들이 연합하여 신간회를 지지하였다는 점은 두 연합대회를 통해 확인된다.

먼저, 1927년 9월 23일 19개 단체(전주청년회, 신간회 전주지회, 배달인조합, 양화조합, 제과조합, 전주노동연맹, 삼례노동조합, 철공조합, 삼례정미조합, 계우금융조합, 인쇄직공조합, 용인조합, 전주형평사, 기독교청년회, 전주민우회, 흥학회, 伊東支盟, 형평청년회, 삼례정미조합)가 준비회를 소집하고 사회단체 협의회를 계획하였을 당시 중심인물이었다(이평권(李平權) 사회, 하준기(河駿驥) 개회사, 교섭위원 최경렬(崔景烈), 송주상(宋柱祥)).³⁴⁾

그 다음으로 1927년 10월 6일에는 10개의 사회단체(신간회전주지회, 전주민우회, 배달조합, 전주형평청년회, 전주형평사, 전주청년동맹, 전주청년동맹 삼례지맹, 고용인조합, 근우회 전주지회, 전주기독교청년회, 전주철공조합, 전주인쇄직공조합, 전주양화직공조합) 대표 58명이 협의하여 신간회지지 및 청년, 소년, 노동, 농민, 여성, 형평운동과 관련해 논의했다(전주사회단체협의회).³⁵⁾ 이를 통해 신간회 전주지회는 이전 1920년대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을 이끌던 단체들이 합심하여 결성되었고, 1920년대 사회단체 참여자들 중 일부 인물들은 신간회 조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3. 신간회 전주지회 참여인물

초기에는 전주 교풍회 혁신에 가담한 최경렬을 비롯한 유지들 10여 명이 뜻을 모아 5월 10일 오후 9시에 청년회관에서 설립대회를 개최하였다.³⁶⁾ 신간회 전주지회 임원진을 살펴보기 위해 회의 별 임원 개편 현황을 일자로 정리해보

34) 『社會團協議會』 『동아일보』 1927년 9월 26일 4면 3단.

35) 『全州社會團體 協議會創立大會 十餘團體代表會晤』 『조선일보』 1927년 10월 10일자 4면 2단. 『全州社會團體 協議會創立大會』 『동아일보』 1927년 10월 11일 5면 1단.

36) 『新幹會 全州支局設立』 『매일신보』 1927년 5월 19일 4면 7단. 그런데, 당시 지역 유지들은 1920년대 초기 청년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으나, 중반부터 지역 자치기구와 공직에 참여하였으므로 청년운동과는 거리를 두었다(지수걸,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 90, 2010, 161~169쪽).

면 아래 표와 같다.³⁷⁾

표 1. 신간회 전주지회 임원진

회의명	일자	임원	선거
창립총회 준비	1927.4.4	위원장: 배은희(裴恩希) 위원: 최경렬, 신현창(申鉉彰)	조선 1927.4.4
창립총회	1927.5.10	회장: 배은희 부회장: 최경렬 간사: 임택용(林澤龍)·송규상(宋桂祥) 등 6인	조선 1927.5.13. 매일 1927.5.19
간사회	1927.6.3	서무부간사 이용기(李龍基) 사임, 김동수(金東樹) 보선	조선 1927.6.6
간사회	1927.11.4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김가전(金嘉全) 사임, 신현창(申鉉彰) 임명 상무간사 백정목(白定木) 사임, 하준기·오기성(吳基成) 임명	조선 1927.11.9
간사회	1927.9.30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이용기(李龍基) 사임, 송계상(宋桂祥) 임명 간사: 최태혁(崔泰赫) 조사연구부: 한탁(韓鐸) 사임, 신현창(申鉉彰)	동아 1927.10.06
제1회 신입간사회	1928.2.4	회장: 백용희(白庸熙) 부회장: 배은희(裴恩希) 대표회원: 송계상(宋桂祥)·이평권(李平權) 서무부 총무간사: 김동선(金東鮮) 간사: 하준기·오기성(吳基成)·김영호(金永浩) 재정부 총무간사: 임택용(林澤龍) 간사: 임태호(林泰鎬)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송계상(宋桂祥) 간사: 이성진(李成珍)·최태혁(崔泰赫)·한탁(韓鐸) 선전조직부: 이평권 간사: 김흥수(金興洙)·김균(金均)·고득순(高得恂) 조사연구부총간: 신현창(申鉉彰) 간사: 유상원(柳祥元)·이원규(李元奎) 기타 간사: 박노수(朴魯洙)·한탁(韓鐸)	조선 1928.2.8
간사회	1928.4.13	서무부간사: 오기성 사임, 김영호 외 4명 자격 상실, 서무부 총무간사: 하준기, 도기섭(都基燮), 정석권(鄭錫權) 재정부 총무간사: 임택용, 간사 박원직, 박태호(朴泰鎬) 선전부 총무간사: 김동선, 간사 김관제(金觀濟), 김균(金均), 고득순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신현창 간사 이윤재(李潤宰), 이원규(李元奎), 김불(金弗)	동아 1928.4.17. 중외 1928.4.16

37)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균영, 앞의 책, 1993, 617~620쪽이 참조되며, 별도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회의명	일자	임원	전거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이성진(李成珍), 간사 최태혁(崔泰赫), 신우영(申寓永), 유상원(柳祥元)	
제3회 정기총회	1929.1.23	회장: 백용희, 부회장: 고득순, 간사: 임택용, 김동선, 송주상, 이성진, 최태혁, 신우영, 김관제, 김문옥, 김상규, 유상원, 이용기, 이이권, 김불, 박노수, 김지수, 대의원: 백용희, 김관제, 신우영, 김동선, 송주상 후보: 이용기, 윤규섭	동아 1929.1.26
간사회	1929.1.28	서무부 총무간사: 김동선, 부원 김지수(金智洙), 유상원(柳祥元) 재정부 총무간사: 김상규(金相奎) 부원: 박노수(朴魯洙), 김문옥(金文玉) 문화정치부 총무간사: 송계상, 부원 최태혁(崔泰赫), 하린(河麟) 조직선전부 총무간사: 임택용 부원: 김불(金弗), 신우영(申寓永)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이성진(李成珍) 부원: 김관제, 이평권	조선 1929.1.30
간사회	1929.7.23	회장: 백용희(白庸熙) 입시대회 준비위원: 고득순, 김지수, 김문옥(金文玉)	조선 1929.7.26
임원개선	1929.9.9	집행위원장: 김관제 서기장: 김철(金哲) 회계장: 신현창(申鉉彰) 서무부장: 김철 부원: 이춘봉(李春奉)·변신덕(邊信德) 재무부장: 신현창 부원: 진상용(陳相庸)·조석균(趙錫均) 조직선전부장: 김문옥 부원: 고희철(高熙哲)·장재섭(張在燮) 조사연구부장: 유상원 부원: 김지수·이이권(李二權) 교육부장: 이성진(李成珍) 부원: 백안기(白安基)·하린(河麟) 후보: 이윤재·박태호·도기섭 검사위원: 백용희, 임택용, 배은희, 고득순, 김불, 박노수	조선 1929.9.12. 조선 1929.10.1
집행위원회	1929.11.8	재정부장 신현창(申鉉彰) 사표, 진상용(陳相庸) 추천	조선 1929.11.12

신간회 전주지회와 관련해서 가장 이른 기록은 1927년 4월 4일 유지 30명이 가입하였고, 창립총회 개최를 준비하였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창립총회 개최 당시 위원장에는 배은희(裴恩希), 위원은 최경렬, 신현창 등이었다.³⁸⁾ 회장을 맡았던 배은희는 대구성경학교,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의하면 3·1운동 당시 김치옥과 함께 종교인과 일반민을 규합하여 지하 운동에 착수했다고도 전한다.³⁹⁾ 신현창도 전

38) 『新幹會支部』 『조선일보』 1927년 4월 4일 4면 1단.

39) 국가보훈처 공훈록 김치옥 항목

주민우회, 전주기독교청년회, 면려청년회에 참여한 전주지역의 개신교도였다. 최경렬의 경우에는 그가 개신교도인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주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당시 교섭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⁴⁰⁾ 이 지역 유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신간회 전주지회의 초기 주도 세력은 주로 개신교 측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어서 신간회 전주지회는 1927년 5월 10일 설립대회를 청년동맹회관에서 개최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회장은 배은희, 부회장은 최경렬, 임택용(林澤龍)·송계상(宋桂祥) 외 6명이 간사를 맡았다. 송계상 역시 최경렬과 마찬가지로 전주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시 성명서를 냈던 지역 유지였다.⁴¹⁾ 배은희 회장 체계는 차기 회장인 백용희가 맡을 때까지 이어졌다.

위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간회 전주지회는 전북과 전라지역 신간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 신간회 전주지회에 참여했던 이용기와 백용희를 통해 확인된다. 이용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전라도 위원이었고, 설립 초기에 참여하였다. 그는 1929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지회에 참여하였다. 조선일보 전주지국장을 맡았고, 사회주의자 전주고보 동맹휴학시 성명서 발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백용희는 대한제국기에는 군전위원을 잠깐 맡았다가 의원면직 후 향장(鄕長), 임시우편주사 등을 맡았던 지역 유지였다. 청년운동을 하지는 않았던 인물로 민족주의자라고 하기 보다는 지역 유지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후 그는 전주고등보통학교 창립을 주도적으로 맡았다. 그는 1928년 2월 4일 신임간사회에서 회장에 임명되었고, 배은희에 이어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목할 점은 그가 복대표위원회 당시 전북을 대표했다는 사실이다. 신간회 제2차 정기대회가 일제에 의해 금지되자 각 인접한 지회에서 연합하여 복대표 1명을 선출하여 이들이 모여 회의를 하여 정기대회를 대신하고자 하였다. 1929년 4월 11일 경성지회에서 지회 연합회 축성이 결의되었고, 전국을 14개 선거구로 나눈 후 각 선거구에 2명의 중앙간부선거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에서도 1929년 5월 29일 복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전주, 순창, 남원, 임실 4개 지회에서 투표한 결과 백용희가 전주구에서 대표로 선출되었고, 이전 회장인 배은희는 부회장을 맡게 되었다. 복대표대회에서는 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이 본부 간부로 선출되었는데,⁴²⁾ 사회주의자가 아닌 백용희가 전주구대표를 맡았다

40) 『독립운동사 제9권: 학생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7, 430쪽.

41) 『全州新幹支會 部署設置』, 『조선일보』 1927년 5월 13일 1면 6단 ; 『新幹會 全州支局設立』, 『매일신보』 1927년 5월 19일 4면 7단.

는 점은 특이한 점이다. 백용희는 신간회 복대표대회 서기,⁴³⁾ 중앙집행위원⁴⁴⁾ 등을 맡았고, 1930년 9월 구속되기 직전까지 계속 신간회 회장을 반복해서 역임하면서 이 지역 신간회를 주도하였다.

전주지회에서 주목할 또 다른 사실은 1929년 초까지 지역 유지들이 단체를 주도하다가 9월 임원 개선 부서는 사회주의 계열이 지회를 주도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1928년 2월 4일 백용희가 회장이 되고, 1929년 1월 23일 까지 그가 그대로 회장을 맡았으며, 부회장에는 목사였던 고득순이 선출되었으며, 임택용이 간사를 맡았다.⁴⁵⁾

그러나, 1929년 9월 9일의 임원개선 당시 김관제가 위원장을 맡은 이후 김문옥, 김철, 장재섭 등 사회주의 계열이 단체를 주도하고, 백용희, 임택용, 배은희, 고득순, 박노수 등의 개신교 계열 및 지역 유지들은 감사위원을 맡으며 지회 운영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는 점이 확인된다. 1928년 11월 8일에 가서는 전주기독교 청년회 출신인 신현창 마저 사임하게 된다.

즉, 이들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술했듯이 개신교 계열 인물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배은희는 대구 성경학교와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3·1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김가전은 영흥사건(일제가 의료활동을 구실삼아 조선인들을 생체실험에 동원하였다가 다수의 조선인이 사망했던 사건) 당시 전주지역 기독교청년회를 대표하여 일제를 규탄하였음이 확인된다.⁴⁶⁾ 오기성은 앞서 언급한 영흥사건 규탄 당시 남문외교회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던 개신교 계열이었다. 그는 신흥학교졸업생회장, 전주청년동맹을 맡았다. 김홍수 역시 전주기독교청년회 출신이었고, 전주기독교청년회, 전주청년회 위원 청맹위원회, 전북형평대회 의원, 청년 이서지회, 전주지맹 등에 참여하였다.

특히 목사였던 고득순이 주목된다. 군산 임피군 출신인 고득순은 군산 임피군 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사립 임동학교(臨東學校) 교장, 영생유치원, 보육원장 등을 맡았다. 특히 그는 조선기독교경성연합회의 전주기독교계연합 위원장을 맡았고,⁴⁷⁾ 영생보육학원(1953년 폐쇄)의 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42) 이균영, 앞의 책, 1993, 200~201쪽. 복대표대회와 관련한 최신의 연구는 윤효정, 「복대표대회 전후 신간회 본부의 재편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3, 2018 참조.

43) 「新幹代表會 複代表委員會」 『동아일보』 1929년 6월 29일 3면 8단.

44) 「規約通過後 委員도 改選」 『동아일보』 1927년 7월 1일 3면 4단.

45) 「全州新幹大會」 『동아일보』 1929년 1월 26일 5면 2단.

46) 「永興事件의 堂局糾彈講演會」 『조선일보』 1927년 4월 21일 1면 7단. 「永興事件 糾彈演說開始」 『동아일보』 1927년 4월 22일 4면 9단.

둘째, 다른 지회와 마찬가지로 청년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주로 활동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전주지역 청년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다른 지회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뉜다. 먼저, 임택용은 전주청년회와 민우회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며, 이용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전라지역 의원이었고, 전주에서 조선일보전주지국장을 맡았으며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자였다. 그는 임택용과 함께 전주지역 청년운동을 주도하였고, 전주일신청년회 주최로 1924년 8월 3일 오후 8시반 웅변대회에서 연설하던 인물이다.⁴⁸⁾ 또한 고흥철은 전주청년동맹 고산지회 서무재정부, 전주청년동맹 위원을 맡았다. 김동수는 완산청년회 간사, 전주청년회, 전주민우회 참여하였다. 최태혁은 전주청년회와 전주민우회에 참여하였다. 도기섭은 전주청년회 위원을 맡았다. 이원규는 일신청년회 서무부위원을 맡았고, 전주청년총회 서무부에서 일했다.

셋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사회주의 단체에 참여했다고 해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사회주의 성향을 띤다고 볼 수 없지만, 전주지회에서는 공산당사건에 연루된 어린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하준기(1906년생)의 경우에는 전주청년동맹위원회, 전주노동단체 등에서 활동하였고, 이서지회, 전주청년대회 산하 전주, 삼례 지부에서 청년운동을 이끄는 등 이 지역 청년운동 확산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제4차 공산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이후 석방 이후에도 전북지역에서 기자 활동을 벌였다.⁴⁹⁾ 이평권(1904년생) 역시 하준기와 함께 청년운동을 주도하였고, 제4차 공산당사건 당시 전주지역에 야체이카를 조직하였다.⁵⁰⁾

그 외에 전주지역에서 3층(학생, 노동,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김문옥은 전주지역에서 비교적 일찍 생겨난 완산청년회의 간사를 맡았고, 전주청년동맹대회 도연맹 대표, 조선노동총동맹 전주연맹대회

47) 『基督教聯合機關 六月五日發會式舉行』 『조선일보』 1938년 5월 31일 7면 4단.

48) 『雄辯大會』 『조선일보』 1924년 7월 30일 4면 2단.

49)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에서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삼일독서구락부, 사회주의 운동, 치안검속으로 구속 전주연합운동, 전주청년동맹위원회, 전주노동연합, 전북청년동맹에 참여하였고, 조선일보 전주지국 기자, 고려공산청년회 전북위원, 광복 이후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 등을 맡았다.

50) 『第四次共產黨 豫審終結決定文(二)』 『조선일보』 1930년 12월 19일 6면 4단.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에서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조선청년총동맹 전북도연맹 참여, 익산 고려공산청년회 가입, 전북청년대회, 전주청년동맹, 조선청년총동맹 가입 조선공산당 전북도당(고려공청 전북도책), 전주사회단체협의회 창립위원, 청총 전북연맹 위원장 등을 맡았다.

집행위원, 공산청년회조직 서무재정부, 전주합동노동조합 부위원장, 조선공산당재건전주지구위원회,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전국대회 전북대표, 전주청년동맹집행위원 등을 맡았다. 이성진은 전주노동학회 강사, 전주청년회운동부위원, 군산형평대회, 전주노동연합대회를 개최하였고, 전주지역 합동노동조합운동을 주도하였다.⁵¹⁾ 신우영은 전주노동연맹, 삼례노동조합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이춘봉은 청년동맹 전주지맹 대의원, 전주노동연맹위원을 맡았다.

1929년 말에는 김관제, 김철(1899년생) 등이 신간회를 주도하였고, 장재섭(1909), 조석균, 진상용 등이 참여하였다. 장재섭은 조선공산당재건 전주지구 위원회에 참여하였다.⁵²⁾ 조석균은 전주노동연합대회 위원, 전주합동노동조합 간부였다. 진상용은 전북기자단 준비원 전주청년연맹 서무부위원, 전주신우회 참여, 전주합동노동조합 간부였다.

넷째, 관료 출신도 참여하였다. 부회장이었던 최경렬은 정읍과 군산지역에서 서기를 했던 관료 출신으로 전주노동야학회 총무를 맡았고, 전주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의 교섭위원을 맡았던 인물이다. 한탁은 남원, 전주, 정읍 등에서 군 서기를 맡았는데, 전주노동연맹 집행위원회 연사로 참여했다.⁵³⁾

다섯째, 언론인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언론인으로 특히 신간회 전주지회에 활발하게 참여한 이는 김동선인데, 전북기자단에서 제명되기도 했지만,⁵⁴⁾ 전주청년동맹 및 전주민우회 상무를 맡았고, 향후 수해구제를 이끄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신간회 중앙집행위원과, 재정부 부원을 맡기도 했다.⁵⁵⁾ 동아일보 김지수는 전북기자단 상무를 맡았던 점이 확인된다.⁵⁶⁾ 김지수는 언론인인 동시에 신흥교우회, 제구노동창립총회 참여, 전주신우회 등에도 참여하였다. 박노수는 동아일보 전주지국장으로서 전북기자대회, 전주민우회 이사, 전주인쇄주식회사 사장, 전주시민운동 서무부장 등을 맡았다.

그 외에 임택용은 전주청년회 서무부, 전주 기근구제회, 전주민우회활동, 전주청년회 활동, 전주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 전주시민대회 참여 등에 참여하였

51) 『全州合同勞組 서면대회 결의』 『동아일보』 1930년 1월 12일 3면

52) 장재섭 판결문(CJA0001799) 이 지역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관련해서는 오대륙, 앞의 논문, 2007, 85쪽과 이현진, 『전북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1929~1932)』 『전북학연구』 3, 2021을 참조하였다.

53) 『全北勞農運動者가』 『조선일보』 1924년 5월 20일 3면 3단. 『全州勞動聯盟 執行委員會』 1927년 11월 8일 4면 11단.

54) 『全北記者團 執行委員會諸決議』 『동아일보』 1925년 10월 7일 4면 5단.

55) 『독립운동사자료집 14: 대중투쟁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8, 313쪽.

56) 『全北記者團 七條項決議』 『동아일보』 1928년 1월 11일 5면 5단.

다.57) 여기에 김영호의 행적이 주목된다. 그는 전주천도교청년회에 참여하였던 천도교인으로 국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자금 모집을 했던 점이 공훈록에 확인된다. 그러나, 회의 출석수 미달로 1928년 4월 13일 간사회에서 자격 상실하였던 점이 확인된다.

전주지역에는 신간회의 창립과 더불어 근우회 전주지회(1927.8.22.창립)도 생겨났으나, 참여한 여성들이 신간회에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간회에 참여했던 인물들 중에서 주요 인물들은 광복 이후에도 요직을 담당했다. 초기 회장이었던 배은회는 국회의원을 맡고, 반탁운동에 참여했다. 신간회 초기 조사연구부였던 김가전의 경우에는 신흥학교에서 15년을 교육하고, 전주중학교 교장을 역임한 후 전라북도 도지사가 되었다.58)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하준기의 경우에도 전라북도 선거위원회 위원을 맡았다.59)

4. 신간회 전주지회의 활동

신간회는 준비위원회를 열고, 1927년 5월 10일 신간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주지회는 매춘과 풍기문제를 계몽하고 강좌를 개설, 군대 주둔 반대 등이 다른 지회가 갖지 않는 특징적 모습이다.60) 전주지회의 회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신간회 전주지회 각종 회의 내용

회의명	일자	회의내용	선거
제3회 간사회	1927.6.3	서무부간사 이용기 사임 수리, 김동수 보선 화호리(禾湖里) 6월 12일 신간회 지회설립총회 대	조선 1927.6.6

57) 전주에서 치과를 개업한 임택용도 있는데, 그는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세브란스의원 치과에서 근무하다가 전주 대화정 남문에서 임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던 것으로 알려져있다(『林齒科醫好評』, 『동아일보』 1924년 6월 27일 3면 7단). 그는 1921년 3월 10일 치과를 읍내에서 개업하였던 것으로 연구되었는데(김경남, 『1894-1930년 ‘전통도시’ 전주의 식민지적 도시개발과 사회경제구조 변용』, 『한일관계사 연구』 51, 2015, 265쪽). 청년운동에 참여한 임택용과는 한자 이름까지도 같다. 이들이 동명이인인지, 같은 인물인지는 불분명하다. 청년운동에 참여한 임택용은 사회주의 성향을 띄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임택용과 관련해서는 발표회 당시 신귀백 소장님께서 귀중한 조언을 주셨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58) 『新任全北知事 金嘉全氏 任命』, 『동아일보』 1949년 12월 18일자 1면 5단.

59) 『各道選舉委員定式選定』, 『경향신문』 1948년 3월 25일자 1면 7단

60) 이균영, 앞의 책, 1993, 288-294쪽.

회의명	일자	회의내용	전거
		표 송주상(宋柱祥) 파견, 완도 소안 사립학교 폐지 반대 가결	
간담회	1927.7.15	부회장 최경렬(崔景烈) 사회 하에 간담회 개최 회원 모집의 건, 회비 모집의 건, 중국 동란에 대한 의견, 전주소학교 부지 문제, 보안 조합 전주 지역 투쟁단체 행동 원조	조선 1927.7.18. 동아 1927.7.19. 중외 1927.7.19
제4회 간사회	1927.7.19	동경학우회 하계 순강 대후원 간부 사무 집행 9월 1일부터 매일 집무 전주 군대 설치 문제 반대 소학교 부지 문제 부회장과 조사부 일임	조선 1927.7.14 동아 1927.7.23
신간회 북전주지회 간사회	1927.8.21	간사 사임 및 보선에 관한 것	동아 1927.8.25
간사회	1927.9.30	간사 보선, 간담회 계획	동아 1927.10.06
간담회	1927.10.7	회원토의, 진행방침 결의, 酒草 통계 보고	동아 1927.10.11
간사회	1927.11.4	간부해임과 보선, 회비 회수, 회원모집 건, 삼례 각회회, 도박 공개 조사 건, 신간회 신문재료 건, 신문지국 동아 조선에 경고 발송, 단체인물조사 건, 행동 일치 건	조선 1927.11.9
간사회	1927.11.14	각면 도로 사이 부설공사 宋柱祥 조사 도로개량 수선에 사용하는 예산 상세 조사 전주지회대회 개최 11월 29일(음 11월 16일) 개최 계획, 준비위원 최경렬, 임택용, 하준기, 송주상, 오기성(吳基成), 이원규(李元奎) 의안 작성 12인 선정(법제, 사회, 교육 분담) 재정부, 선전부 조직 증설 대회 제의 각 부 의안, 예산 심사회 제출	동아 1927.11.18
간사회	1928.1.28	대회준비, 식당설비, 휘장, 屈○동지, 의안, 대회석, 회원방○, 신간○제지회 발회식 河駿驥 특과	조선 1928.2.2. 동아 1928.1.31
제1회 간사회	1928.2.4	부서결정 관련 건, 임원개선 건, 본부대회대의원 선거(송주상, 이평권, 배은희)	동아 1928.2.7
제2회 간사회	1928.2.9	본부창립기념식 계획(1928.2.15.), 기념사업, 정치 문화부 한탁 사임, 간사 최경렬 보선 상무간사를 두고 인선은 서무부 일임, 예산안 편성, 임시대회 소집(3.27), 본부 집회 해금 운동 방법 논의, 금릉 학원 폐쇄 대책 논의, 야간집회 신고	조선 1928.2.14. 조선 1928.3.13

회의명	일자	회의내용	전거
1주년 기념식	1928.2.15	宋柱祥(개회사), 吳基成(연혁보고) 경찰의 개입으로 회장 연설은 불가	동아 1928.2.17. 매일 1928.2.24
간사회	1928.4.13	임시대회 소집, 본부 소집이유서 제출 간사 규율(2회 이상 이유 없이 불참->자격 상실), 간사 사임(오기성)	동아 1928.4.17. 중외 1928.4.16
간사회	1928.9.8	간사 보선에 관한 건, 함경 수재에 관한 건, 대회 소집에 관한 건	동아 1928.9.11
간사회	1928.12.21	김석배 외 17명 회원 가입, 의안 작성위원 선출(송 주상, 이성진, 김동선, 최태혁),	조선 1928.12.24
제3회 정기대회	1929.1.23	본부대회 건의안, 도 협의기관 설치, 산업통계조 사기관설치, 대회발전, 누에고치, 면화 지정 판매 반대, 무보수 부역 반대, 농민 여성운동 촉진, 3층 해금운동	조선 1929.1.27
간사회	1929.1.28	임원 개편	조선 1929.1.30
간사회	1929.5.17	전주, 임실, 남원 순창 지회 대표자회의 본부공문에 의한 대리인 선정 관한 건 간사 출근에 관한 건 본부출석 복대표 선거 건(장소 전주 소구역) 순창지회 의견 청취	조선 1929.5.16. 조선 1929.5.19
간사회	1929.7.22	조직 변경	동아 1929.7.22
간사회	1929.7.23	복대표회의 보고, 조직체 변경	동아 1929.7.26
간사회	1929.9.9	임시대회와 간사회가 금지, 서면간사회 개최	조선 1929.9.12
집행위원회	1929.11.8	회원정리건, 회원 60명 조사 부위원 일임 새 가입 인원 58명 승인, 분회와 반회 조직 건은 1면 1분회 제도로 하고 高山, 三禮, 草浦, 伊東 에 분회 설치 계획, 도 연합회 축성에 관한 건(전주지회 주최 실행방침은 상무위원회 일임)	조선 1929.11.12. 동아 1929.11.15
상무집행위원회	1929.11.15		동아 1929.11.22

신간회 전주지회는 주로 지역 현안 문제를 토의했다. 조직 설립 이후 1927년 7월 5일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였다.

종래의 편협한 투쟁으로부터 전환하여 전대중적 전면적 투쟁을 전

개하려면 다소의 민족적 이해 문제일진데, 반드시 전민족적으로 확대하며 항쟁하는 것으로 부터 당면목적을 완전히 전취할 수 있는 동시에 그로 인하여 훈련, 지도, 교양을 하게 되니 우리의 이 모든 행동을 결정할 객관적 형세를 정확히 인지치 아니하면 안될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1개월에 1회씩 세계 자본 공세와 노동 공세의 대치가 상부구조에 〇映하는 바 모든 정황을 토의결정하자는 말에 기어코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간담회날에 중국혁명운동의 진전과정을 천명발표기로 결정하고 조사연구부로부터 우리의 모든 결정요소가 될 숫자적 문서가 필요하므로 조사연구 중이라 하며 한산한 하기(夏期)를 이용하여 통속경제강좌의 개강과 간사회의 결의 그것이 때때로 회원 각자에게 통할 수 있는 회보 발행을 하자는 것과 전주에 중대문제가 발생한 일 군대배치 문제와 국유지 建家の 철퇴문제가 생긴 것과 민중 경찰을 표방하는 소위 보안조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문제만을 제출하고 상무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침을 수립하기로 하고...⁶¹⁾

위 인용문을 통해 신간회 전주지회의 방침과 현안 문제를 토의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전주 지역 현안 문제였던 군대 배치로 인해 국유지 가옥을 철거하는 문제, 민중 경찰을 표방하는 보안 조합과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연구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가졌다. 또한 완도소안사립학교 폐지 반대, 전주소학교 폐지 반대 등의 운동을 벌였다. 제3회 정기총회에서는 산업통계조사기관설치, 누에고치, 면화 지정 판매 반대, 무보수 부역 반대, 농민 여성운동 촉진, 3층 해금운동 등이 논의되었다.

7월 15일 8시부터 최경렬의 사회 아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서무부에서 회원모집 건을 제의하였다. 전주지역에서는 신간회 운동이 ‘전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라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투쟁을 통해서 대중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날 특이 논의사항은 전주지역 군대 배치 문제, 국유지에 집 짓는 것을 막는 문제를 저지할 것, 그리고 민중경찰을 표방하는 보안조합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7월 19일에는 간사회가 열렸다. 동경학우회 강의 후원, 간무 사무집행, 9월 1일부터 집무에 행하는 것, 전주 군대 설치 문제 반대, 소학교 부지문제 등을 다루었다.

61) 『全州新幹懇談會』 『중외일보』 1927년 7월 19일 4면 10단.

그런데, 1928년 2월 까지 111개 지회 중 64개 지회가 재만동포옹호 관련 문제를 다루었는데,⁶²⁾ 전주지역에서는 재만동포옹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이리에서 재만동포옹호동맹결성대회가 열렸고 그날 저녁 중국인 상점을 공격하였으며, 전주지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⁶³⁾

또 주목되는 점은 지역 내 전북일보와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일어로 발행된 전북일보에서는 조선인 관련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일보는 “너희들에게는 동물 대우를 하여도 당연하다.” “몇 번이나 때려죽이려고 하였다.” 등의 민족멸시 기사를 계속 게재하였다.⁶⁴⁾ 이에 전주지역 형평사와 근우회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연합하여 1930년 6월 21일부터 연합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신간회 전주지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북일보 사장의 사과와 기사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경찰의 방해로 정정되지 못했다.⁶⁵⁾ 그러다가 1930년 6월 26일 중앙집행위원장 김병로(金炳魯)가 직접 전북을 온 것을 계기로 신간회 전주지회에서는 위원장 김철, 청년동맹 등이 연합하여 전북일보 모욕기사 관련 경과를 보고하였다. 김병로를 비롯한 본부에서는 지방 신문사를 상대로 투쟁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김병로가 상경한 이후 오히려 김철, 진상용(陳相庸), 조석균(曹錫均), 백안기(白安基), 김지수(金智洙) 등의 5명이 검속되었다.⁶⁶⁾

다음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전주 내의 분회 설치와 전라도 연합회를 주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신간회 각 지회에서는 도지회연합회 조직이 진행되었고, 함북도연합회 결성이 논의 된 바 있었다.⁶⁷⁾ 전주지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 1929년 11월 8일에 개최된 신간회에서는 김관제의 사회로 전주지역의 1면 1분회 설치를 논의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연합회 축성회에서 전주지회가 주최가 되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一), ...분회와 반회 조직의 건에 대해서는 1면 1분회제도로 하

62) 윤희정, 「신간회의 ‘민족동권(民族同權)’ 운동과 식민지 체제의 균열적 성격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4, 2022, 64~65쪽.

63) 박정현, 「1927년 재만동포옹호동맹의 결성과 화교배척사건」 『중국학보』 69, 2014, 113~114쪽. 화교배척운동과 관련한 전반적 연구는 이정희, 『한반도 화교사』, 동아사이아, 2018을 참조하였다.

64) 『全北紙暴言事件으로 新幹會本部蹶起 全州支會에 調査電命』 『중외일보』 1930년 6월 21일 2면 3단.

65) 『各團體聯合會』 『조선일보』 1930년 6월 23일 2면 7단.

66) 『全州社會團體 代者 五名을 檢束』 『조선일보』 1930년 6월 29일 2면 3단

67) 이균영, 앞의 책, 1993, 204쪽.

기로 하고 우선으로 고산(高山), 삼례(三禮), 초포(初浦) 이동(伊東) 4개 분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의

일(一), 도 연합회 축성의 건에 대해서는 전주지회가 주체가 되고, 실행방침은 상무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68)

일찍이 신간회 전주지회는 설립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정읍의 분회인 화호리 설립총회에 송주상을 파견하였던 바가 있었으나,69) 전주지역의 분회에는 아직 전라남북도 신간회 연합회는 일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므로 설립대회를 열지 못하였다.70)

전라남북도 신간회 연합회 설립 좌절 신간회 전주지회는 일제 경찰에 의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았다.71) 1927년 12월 10일 제2회 정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집회가 금지되었고, 2월 4일에 다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의 검속으로 토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60여 명의 회원의 출석을 확인하고 임원선거를 하는데 그쳤다.72) 1929년 7월 임시대회를 준비하였으나,73) 취소되었다.74) 1929년 10월 회원 수가 180여 명이었고, 주요 간부가 변경되었고, 또한 간사를 위원제로 선출하게 되었다.75) 신간회 전주지회는 1929년 말부터 침체 일로에 들어섰고, 1929년 10월 15일 월례회 역시 전주경찰서 고등계에 의해 금지되었다.76) 일제의 탄압은 계속되어 신간회 전주지회와 전주청년연맹의 12명이 구속되었고, 일부는 석방되었으나, 백용희와 조사연구부 김문옥은 석방되지 않았다.77) 또한 전주 시내 선전 뼈라가 배포된 상황과 관련하여 전주경찰서는 주 단체를 신간회로 간주하고, 신간회 전주지회 회원을 검속하였다.78) 여기에 위원장이었던 김관제가 검거되었다.79)

68) 『全州新幹委員會』 『조선일보』 1929년 11월 12일 3면 5단 ; 『全南新幹支會 道聯合會發議』 『동아일보』 1929년 11월 15일 3면 2단.

69) 『全州新幹支會 幹事會』 『조선일보』 1927년 6월 6일 4면 2단. 정읍지역 화호리 신간회 지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박찬승, 앞의 논문, 2019, 102쪽 참조.

70) 신용하, 앞의 책, 2007, 128쪽.

71) 『全州新幹支會 幹事會禁止』 『조선일보』 1928년 12월 10일 4면 5단.

72) 『全州支會 定期大會』 『조선일보』 1928년 2월 8일 5면 9단.

73) 『新幹全州支會 幹事會開催』 『조선일보』 1929년 7월 26일 5면 1단.

74) 『新幹會集會』 『동아일보』 1929년 8월 4일 4면 9단.

75) 『十年以來惡戰苦鬪 陣容整齊 面目一新』, 『조선일보』 1929년 10월 1일 5면 2단.

76) 『新幹委員會禁止』 『동아일보』 1929년 10월 21일 3면 2단.

77) 『全州署에 검거된十二名中九名釋放』 『조선일보』 1929년 12월 31일 7면 7단 ; 『全州署에檢舉한 社會團體人物 그중 세 명은 석방하였다 內容은 絕對秘密』 『매일신보』 1930년 4월 7일 2면 1단. 백용희가 검거된 까닭은 소작쟁의를 선동한 것이라고 전해진다(『全州新幹檢査長 白庸熙等檢舉』 『동아일보』 1930년 4월 5일 2면 10단.

임시대회를 여는 것에 그치던 신간회 전주지회는 제3회 정기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했고, 이들이 이날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은 그동안의 회의 내용 중 가장 많은 수에 달하였다. 예산안통과, 도 연합회조직, 지회회관문제, 본부회관건축, ○○일보(80)배신에 관한 건,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경찰정치 규(81)탄의 건, 언론집회자유획득의 건 등의 회의안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⁸²⁾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이를 금지하였고, 3월 5일까지 우선 집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간회 위원은 임시대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신간회에서는 1930년 4월 20일 오전 10시 임시대회에서 신간회 탄압대책에 대해 논의코자 하였다. 그런데 이날 경찰 당국으로부터 금지를 당하고 해산권고를 받자 노동위원들이 항의하였고, 교섭위원 김지수, 진상용 등을 경찰위원회에 보냈다. 이날은 제3회 정기대회에 했던 내용 대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하였다 (토의 예정 사항: 전체대회의안 작성, 예산안통과, 도연합회조직, 본지회회관문제, 본부회관건축비, 회비징수, 지도 이론과 행동강령, 각 우의단체, 북선일보 조선인모욕기사, 언론집회○○획득(이하 4건 생략))⁸³⁾ 그런데, 전날 김철이 경찰서에 가서 신간회 개최를 논의했다가 “집회를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출석 통지를 했다.”는 구실로 검속되어 버리고,⁸⁴⁾ 당일 개최 날에도 신간회 개최를 방해 받아 교섭위원 김지수, 진상용을 파견하였으나, 집회를 거부당했다.⁸⁵⁾ 여러 차례 임시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이어 1930년 9월 2일 백용희 등 간부 8명이 서울로 압송되면서 지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⁸⁶⁾ 그 이후에 해소될 때 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⁸⁷⁾

78) 「21日夜에 全州市에 檄文」 『조선일보』 1930년 1월 22일 2면 4단.

79) 「新幹全州支會 委員長檢放」 『동아일보』 1930년 2월 15일 2면 5단. 「全州新幹委員長 金寬濟一時檢束」 『중외일보』 1930년 2월 18일 3면 7단.

80) 전북일보와 신간회간의 갈등으로 보아 전북일보로 추정된다.

81) 본문에는 斜로 되어 있는데 糾의 오기로 보인다.

82) 「全州新幹支會에서 彈壓對策講究」 『중외일보』 1930년 4월 19일 3면 5단 ; 「全州新幹支會 大會를 禁止」 『조선일보』 1930년 2월 18일 3면 8단.

83) 「新幹全州支會定期大會遂禁止 리유도업시 무조건으로」 『중외일보』 1930년 4월 23일 3면 1단.

84) 「集會는 不許届出委員을 檢束 高壓一貫의 全州警察」 『중외일보』 1930년 4월 25일 4면 1단. 「新幹書記長 全州署에 檢束」 『매일신보』 1930년 4월 25일 7면 4단. 「集會届 가져간 사람 無故留置」 『중외일보』 1930년 5월 10일 3면 8단.

85) 「新幹全州支會定期大會遂禁止 리유도업시 무조건으로」 『중외일보』 1930년 4월 23일 3면 1단.

86) 신용하, 앞의 책, 2007, 108쪽.

87) 신간회 해소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지회가 반대 혹은 보류, 찬성 등의 입장표명을 했지

신간회 전주지회가 회의를 금지당하던 시기인 1930년에는 직접적인 행동에 옮기지 않고, 지역 사회의 일들을 조사하는 역할에 그쳤다. 예컨대, 신간회 전주지회에서는 삼례 지역에서의 소작쟁의를 조사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사건은 이리(裡理) 우근농장(右近農場) 소작쟁의가 확대될 당시 당시 삼례면 구와리(舊瓦里) 농우회에 백용회를 비롯한 몇 명 인물이 검거되었다. 1930년 4월 23일 신간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우회는 4년 전 유문옥(柳文玉)의 발의로 창립되어 소장쟁의 당시 비밀리에 간부가 검거된 것이다.⁸⁸⁾

신간회 해소 이후 전주지역에서는 신간회 지지단체인 민우회가 그 명맥을 이어갔다. 민우회 회관에서는 신간회, 근우회 합동노동조합, 청년연맹 기타 단체가 합동하여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상기 단체들이 193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자가 주도하자 이들과 분리하자는 의견이 민우회에서 제기되었고,⁸⁹⁾ 이후 이 단체들은 신간회 해소까지 연합하지 않았다. 민우회는 신간회 해소 이후에도 해체되지 않고, 1934년까지 전주에서 유일한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민우회에서는 신간회 회원 송주상이 여전히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⁹⁰⁾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 이 지역 청년운동 단체를 비롯한 민족운동 및 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지회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의 구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활동과 신간회 창립 및 해소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밝힌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27년 5월 10일에 설립된 신간회 전주지회는 개신교 계열 및 민족운동 계열이 주도하다가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하였다. 먼저 설립 당시 구성원을 살펴보면, 초대 회장이었던 배은회를 비롯, 다수의 인물들이 개신교였다. 이어 1928년 초(1928.2.4.)는 한학을 연수하였던 백용회가 선출되었고, 신간회 해소기까지 신간회 전주지회를 주도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후 전주지역 청년단

만, 전주지회는 확인되지 않는다(이균영, 앞의 책, 1993, 470쪽).

88) 「參禮舊瓦里 小作爭議顛末 新幹支會서 調査한 것」, 『중외일보』 1930년 5월 1일 3면 4단 ; 「右近爭議로 農友幹部檢舉」, 『중외일보』 1930년 5월 6일 3면 1단.

89) 「全州의 諸團體 民友와 絶緣 事業進行에 支障된다고 主義的衝突」, 『매일신보』 1930년 1월 23일 3면 2단.

90) 「四萬全州市民의 唯一團體民友會」, 『조선일보』 1934년 5월 29일 3면 2단.

체에서 활동하던 이들 및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던 노동자 김문옥과 하준기 등 사회주의자들 역시 참여하였고, 1929년 말(1929.9.9.)에 가서는 김관제, 김철 등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간부에 임명되어 단체를 주도하였다.

다음으로 신간회 전주 지회는 전북지역 중심지회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929년 4월 결의된 신간회 중앙지회 결성 논의 이후 전주, 순창, 남원, 임실을 대표하여 전주지회의 백용희가 당선되었고, 전라남북도 신간회 연합회를 전주지회를 중심으로 열고자 하였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지회를 밝히는데 집중하여 이균영의 군산지회 연구⁹¹⁾와 박찬승의 정읍지회 연구⁹²⁾를 제외한 전북지역의 지회들(김제,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전주, 화호(禾湖) 나주, 익산)의 연구를 하지 못했다. 차후 해당 지역의 연구가 선행된다면 전북지역 신간회의 활동 상황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논문접수일: 2023. 02. 17. / 심사개시일: 2023. 03. 25. / 게재확정일: 2023. 04. 05.

91) 이균영, 앞의 책, 1993, 338~353쪽.

92) 박찬승, 앞의 논문, 2019, 102~105쪽.

참고문헌

1. 원전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매일신보』
장재섭 판결문(CJA0001799).

2. 단행본

강만길,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7, 『독립운동사 제9권: 학생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8, 『독립운동사자료집 14: 대중투쟁사자료집』.
신용하, 2007,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이균영, 1993,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3. 논문

김대훈, 2003, 「新幹會 大田支會 設立運動」,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영진, 2011,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과 ‘비타협’논쟁」, 『향토서울』 78권.
김인덕, 1997, 「신간회 동경지회와 재일조선인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집, 243-266쪽.
남정원, 2006, 「1920년대 후반 신간회 대구지회의 설립과 활동」, 『계명사학』 17권, 299-325쪽.
박정현, 2014, 「1927년 재만동포옹호동맹의 결성과 화교배척사건」, 『중국학보』 69권, 105-127쪽.
水野直樹, 1979, 「新幹會東京支會の活動について」, 『朝鮮史叢』 1호.
심상훈, 2020, 「일제강점기 민족협동전선운동과 신간회 지회 운동-1920년대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29권, 105-130쪽.
심상훈, 2021, 「일제강점기 민족협동전선운동과 신간회 지회 운동-1920년대 경북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57권, 221-257쪽.
오대륙, 2007, 「1920년대 ‘전북민중운동자동맹’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1

- 집, 62-97쪽.
- 윤희정, 2007, 「신간회 지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문제연구』 18권, 121-139쪽.
- 윤희정, 2017, 「신간회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윤희정, 2018, 「북대표대회 전후 신간회 본부의 재편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63집, 65-93쪽.
- 윤희정, 2021, 「신간회 순천지회 연구」, 『호남학』 70권, 183-219쪽.
- 윤희정, 2022, 「신간회의 ‘민족동권(民族同權)’ 운동과 식민지 체제의 균열적 성격-재만동포옹호운동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4집, 53-93쪽.
- 이균영, 1992a, 「신간회 군산지회의 설립과 구성원」, 『서암조항래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 이균영, 1992b, 「신간회 평양지회의 조직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수춘 박영석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 이윤갑, 2004, 「일제하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 『東方學志』 123호, 239-302쪽.
- 이현정, 2002, 「신간회 안동지회의 성립과 활동」, 『안동사학』 7권, 137-158쪽.
- 이현진, 2021a, 「전북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1929~1932)」, 『전북학연구』 3집, 179-209쪽.
- 이현진, 2021b, 「전주청년회의 성격변화와 간판 철거 사건」,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4권 2호, 153-173쪽.
- 조규태, 2000, 「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89집, 237-258쪽.
- 조성운, 2000, 「일제하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 『실학사상연구』 15·16호.
- 조성운, 2010, 「일제하 광주지역의 신간회운동」, 『사학연구』 100권.
- 지수걸, 2010,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 90호, 156-180쪽.
- 한규무, 정찬욱, 2021, 「남평유림각사건(1927~1928)과 신간회 나주지회」, 『남도 문화연구』 44호, 387-419쪽.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Singanhoe Jeonju Branch and the Activities of Participants

Chang, Kyoung-Ho*

This thesis's goal is to advance Singanhoe Branch research by examining how the Singanhoe Jeonju Branch was founded and how its participants engaged in activity. The Singanhoe Jeonju Branch was the first national branch to draft the establishment committee, and on May 10, 1927, the second branch was created in the nation. In the 1920s, Jeonju was home to a number of social groups. Some of these organizations showed support for Singanhoe through resolutions of the association, and some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were instrumental in its founding.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involved in the Jeonju branch of the Singanhoe, it is verified that Choi Kyung-ryul, and Bae Eun-hee, a Protestant, Lee Yong Ki, congressman of Korean Provisional Congress(Jeolla), commanded the Singanhoe. After that, the local governor Baek Yong-hee, a former officer in the Korean Empire, took over and was chosen to represent Jeonbuk on the Singanhoe Committee. He has since held positions as a central consul and secretary of the New Book Recovery Representative Conference. Kim Kwan-je, a socialist, presided over the committee in the latter half of the '30s.

In other words, socialists like Ha Joon-ki and Lee Pyeong-kwon took part in the early stages as well, but starting in September 1929, socialists like Kim Gwan-je, Kim Chul, Kim Moon-ok, and Jang Jae-seop ran the Jeonju Branch of the Singanhoe primarily. On November 8, a Protestant named Shin Hyun-chang resigned from the finance department. The lone participan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who was later disqualified was Kim Young-ho of the Jeonju Cheondogyo Youth Association, who helped raise money for the movement on behalf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inganhoe Jeonju Branch's primary characteristic is that it acted as a central

* A Senior Researcher in Tradition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ranch for the Jeonbuk and Jeolla regions. In addition, it was planned to set up branches in Gosan, Samrye, and Chopo Idong, providing that a one-sided one-minute meeting could be established in Jeonju. The Jeonju branch of the Singanhoe then spoke about removing state-owned homes due to military deployment, investigating public police security associations, opposing school abolition, creating industrial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s, discussing silkworm cocoons, cotton sales, non-payment, supporting farmers' and women's movements, and samchonghaeguem movement.

Key Words : Singanhoe, Jeonju Branch, Bae Eun-hee, Choi Kyung-ryul, Kim Kwan-je, Ha Joon-ki, Lee Pyeong-kwon